

영어교육 63권 4호 2008년 겨울

초등영어 시수 확대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 반응*

김성연(한양대학교), 이소영(인하대학교)
이완기(서울교육대학교), 이재희(경인교육대학교)**

Kim, Sung-Yeon, Lee, Soyoung, Lee, Won-Key & Lee, Jai Hee. (2008). Primary school English teachers' and students' perspectives on increased instructional hours. *English Teaching*, 63(4), 327-348.

Since 1997,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MOE) has been implementing a primary school English program for the 3rd to the 6th grader as part of its globalization effort. After ten years of implementation, this program has been criticized for a lack of continuity between the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English curriculum. This problem is largely ascribed to the insufficient instructional hours for English classes offered in primary schools. Under the current system, 3rd and 4th graders take English classes once a week while 5th and 6th graders receive two classes per week. Accordingly, the MOE has piloted a new program to increase the number of instructional hours of primary school English classes. The present study surveyed 306 classroom teachers and 685 students who have participated in this pilot program to examine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the new initiative. The findings show that while the participants felt that there was a clear need for increased instructional hours, they pointed out several barriers to quickly adopting the program. The main barriers to implementing the program were increased teaching load and a lack of highly qualified teachers.

I. 서론

1997년에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에 도입된 초등영어는 현재 3, 4학년 주 1시간(40분), 5, 6학년 주 2시간(80분) 수업을 하고 있다. 초등 영어교육이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교육과정에 설정된 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은 대체로 만족할만한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이완기, 최연희, 부경순, 이정원, 2001; 최연희, 이정원, 이완기, 부경순, 2003).

*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과제로 진행되었음.

** 김성연: 제 1저자; 이소영: 제 2저자; 이완기: 공동저자; 이재희: 공동 저자

그러나, 현재의 초등 영어 수업 시수는 양적으로 너무 부족하여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노출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읽기, 쓰기 등의 문자언어 교육에 대한 비정상적인 제한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초등 영어교육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병민, 2003; 이완기 외 2001). 즉, 학교에서 시행하는 초등영어 수업 시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수업에서 다루는 영어 학습의 양이 매우 제한적이고 적은 편이어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초등 영어 수업이 음성언어 중심으로 진행되고 문자언어는 경시되어, 초등영어 수업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견해가 많다.

그 결과는 크게 2가지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사교육에서는 초등학교 영어 수업의 양과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이에 대해 학부모들이 호응을 보임으로써 초등 영어 관련 사교육은 날로 번창해가고 있다. 초등 영어교육을 위한 사교육비의 증가는 학부모들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둘째, 초등학교 시절에 조기 해외 유학을 떠나는 경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외화 유출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어 학습만을 위한 조기 해외 유학이 교육적으로 타당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 조기 유학 이외에, 영어 마을 입소, 영어 캠프 입소, 영어 체험 센터 활용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초등 수준의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초등학교 영어는 3, 4학년의 경우, 1주일에 1시간씩 수업을 하고, 현재의 교과서가 1단원을 4차시에 걸쳐 다루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 1단원을 마치는 데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절대적인 시수 부족에 공휴일이나 기타 학교 행사 등으로 수업 결손이 누적되는 경우 학생들이 앞 시간이나 앞 단원에서 배운 영어를 대부분 망각해 버려서, 수업은 했지만 이를 기억하거나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초등영어 교육과정이 음성 언어에 편중되어 있어서 학생들은 영어의 4기능을 균형있게 학습하지 못하고 중학교 영어과 교육내용을 이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초등영어와 중등영어 교육과정의 연계성 문제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 논의되어 왔다(이완기 외 2001; 최연희 외, 2003).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으로, 현재의 초등학교 3~6학년 영어 수업 시수를 순증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초등 영어교육의 내용과 수준을 지금보다 한층 더 확대하여 초등 영어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면,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한층 더 높일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사교육의 문제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 교육과정에 의해 초등영어 수업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수업 시수 확대를 도입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우선, 초등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충분히 확보하는 문제, 교육의 내용을 좀 더 심화하고 양을 늘이는 문제,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부담

문제, 교사의 수업 부담 문제, 또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과정 운영 문제, 이것을 위한 교육 재정의 확보 문제 등 초등 영어교육에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들이 재검토되고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예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어교육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고, 또 영어 사교육의 성업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면, 초등 영어의 수업 시수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한 실험 학교에 수업 시수 확대를 적용하고 이에 참여한 연구학교 교사들의 관점 및 태도와 학생들의 경험을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학생과 교사의 관점에서 수업 시수 확대가 교육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또 그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언어 입력의 중요성과 시수 확대의 필요성

Willis(1996)는 접촉(exposure), 사용(use), 동기(motivation), 지도(instruction)를 외국어를 배우는 조건으로 제시하며 그 중에서 접촉, 사용, 동기를 3가지 필수 조건이라고 정의한다. 접촉은 언어에 노출되는 양을 의미하며 Krashen(1982)의 입력가설(Input Hypothesis)의 대표적 개념인 언어 입력과 관련이 있다. Krashen(1982)의 입력가설에 따르면 학습자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목표언어 입력(즉, 학습자의 수준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의 입력)을 충분히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충분한 언어 입력의 제공이 목표언어 학습의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출력가설(Output Hypothesis)과 상호작용 가설(Interaction Hypothesis)등이 제시되었다. 출력가설을 주장하는 Swain(1985)은 언어 입력뿐만 아니라 이해가능한 출력이 언어습득에 필요하다고 가정한다. 상호작용가설을 주장하는 Long(1995)은 학습자의 현재 수준보다 높은 언어입력보다 상호작용을 통해 조정된 입력이 언어습득에 더욱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상호작용 가설은 이해 가능한 언어입력 그 자체보다는, 교사와 학생 간, 또는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처음에는 확실하지 않았던 의미들을 서로 조율, 협상함으로써(negotiation of meaning) 언어 입력이 더욱 이해하기 용이해지고 그 결과 습득이 더 효과적으로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세 가지 가설 모두 차이는 있지만 이해 가능한 언어 입력이 언어 습득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Fillmore(1982)도 외국어 수업을 하는 교실에서 언어입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습자들이 언어에 관한 문법적인 지식

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구체적, 유의미한 상황에서 언어입력이 주어지면 언어 습득을 잘 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언어 입력은 학교 상황에만 국한되어 영어를 접하는 한국 학생들의 경우 학습시간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병민(2003)은 언어 학습은 장기간의 교수를 요하는 복잡한 과정으로서 학습시간은 교실 상황에서 언어를 접하는 학생들의 언어 능숙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습시간의 중요성은 Hakuta, Butler와 Witt(2000)의 연구 보고서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성공적인 영어 습득을 위해 어느 정도의 영어 입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일치된 학설은 없다. 그러나, 어린 아이의 모국어 습득도 듣기와 말하기 활동에 약 9,000시간이 할애된다는 Sharwood Smith(1994)의 연구 결과는 언어 학습에 많은 점을 시사한다. 이를테면, 만 5세 아동의 한국어 사용능력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수준의 기초적인 생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수준의 언어능력 습득을 위해서는 매일 5시간, 5년 간의 노출이(5시간 x 365일 x 5년 = 9,125시간)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언어 습득에 있어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제기되었다(이병민, 2003; 이완기 외, 2001, 최연희 외, 2003, Dekeyser, 2000; Donato, Tucker, Wudthayagorn & Igarashi, 2000; Flege & Liu, 2001; van Lier, 1996). Dekeyser(2000)는 명시적으로 언어를 배우는 성인들에 비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implicit acquisition)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은 자연적 습득은 주당 몇 시간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몰입교육(immersion program)이 제공하는 방대한 양의 언어 입력이 제공될 때 촉진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Flege와 Liu(2001)의 연구에서도 충분한 양의 원어인 입력이 제공되는 경우 목표문화권에 거주하는 기간(length of residence)이 길어질수록 언어 능숙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한편, 실제적인 수업 효과를 검증한 연구로서 Donato 외 3인(2000)은 일본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미국의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일 15분, 주 5회의 수업(주당 75분)을 6년에 걸쳐 적용한 후 일본어 말하기 능숙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수준이 ACTFL 초급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Donato 외 3인의 연구에서 적용된 수업량은 한국의 초등영어 수업 시수와 절대적인 접촉량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이병민(2003)에 요약되어 있는 바와 같이 초등 3,4학년은 주 40분, 5, 6학년은 주 80분 수업을 받아 4년 동안 총 208 시간의 교육을 받는다. 이는 Donato 외 3인(2000)의 연구에서 적용된 총 교육시간(285 시간)의 70% 수준이다. 따라서 Donato 외 3인(2000)의 연구 결과를 한국의 초등 영어교육 상황에 비추어보면 한국의 초등학생들은 ACTFL의 초중급(Novice-Mid)이나 초상급(Novice-High) 수준에도 도달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ACTFL, 1999). 한편, Oryang Kwon(2005)의 연구는 초등 영어교육에 일찍 노출된 그룹의 학생들이 중학교 때 처음 영어를 접한 학생들보다 고등학교 때 실시한 영어 능숙도 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

고했지만 이는 기준 지향 평가(norm-referenced testing)에 근거한 결과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등영어에 노출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ACTFL 같은 능숙도 기준을 참조하여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 점검하는 준거 지향 평가(criterion-referenced testing)의 활용도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학생은 초등 영어교육 4년 과정을 마친 후 중등학교에서도 영어를 배우지만 중등영어 교육과정의 수업 시수가 500시간 정도이기에 절대적인 언어 접촉량이 부족하며 언어 능력의 신장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학교 교육이 총 10년 간 이루어지기에 상당히 장기간 동안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초, 중등 영어 수업 시간은 다 합쳐도 약 700시간에 불과하다.

이 같은 절대적 학습시간 부족은 영어 사용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Donato와 3인, 2000; Flege & Liu, 2001) 초등과 중등 교육과정의 연계성의 부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박약우, 박기화, 최진황, 이소영, 2001; 이완기 외, 2001; 최연희 외, 2003). 이병민(2003)에서 제안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공교육에서 최적으로 요구되는 학습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절대적 학습 시간 부족 문제와 초, 중등 교육과정의 연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초등 영어 시수 확대, 적용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의 반응을 조사, 고찰하고자 한다.

2. 언어입력 제공자로서 교사의 역할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EFL) 환경의 특징은 교실 상황에 국한되어 영어를 접하고 배운다는 것이다. 따라서 EFL 환경은 언어 입력을 접할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학습 시간이 중요하고 언어 입력을 제공하는 교사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Sung-Yeon Kim, 2008). 2002년부터 중등학교에서 교실영어를 사용하여 영어수업을 진행하는 안이 정책적으로 권장되기 시작했고 최근에 와서는 영어 전용 수업 정책이 중등학교에서 고등 교육기관에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또한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TETE)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일선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영어 사용 능력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오고 있다.

영어 전용 강의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교사의 영어 사용이 학습자에게는 언어 입력 제공의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Duk-Ki Kim, 2001; Sung-Yeon Kim, 2008). 특히 EFL 상황에서 교사의 영어 사용은 교실 상호 작용을 촉발하고 학생들의 언어 사용을 촉진시키는 촉매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언어입력 제공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은 상호작용 가설을 통해서도 잘 설명될 수 있다(Long, 1985). 즉, 교사가 목표로 입력을 제공하고 학습자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협상이 이루어질 때 학습자의 언어 습득이 촉진될 수 있다.

영어 전용 수업은 교육적으로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EFL 환경에서 영어를 배운 비원어민 교사들의 관점에서 제한된 영어 사용 능력 때문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Butler, 2004; Yo-An Lee, 2006; Li, 1998; Nemtchinova, 2005). Sung-Yeon Kim(2002)은 영어 사용 빈도와 영어 사용 불안감의 정도 및 영어 전용에 대한 태도가 관련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교사들의 영어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영어 사용 불안감은 낮고 영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교사가 영어 사용에 자신이 없고 능숙도가 부족한 경우 영어 사용 부담이나 불안이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영어 수업 시수 확대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 외에 수업 준비, 수업 진행, 교실 평가 등의 업무가 추가되기 때문에 교사 관점에서 많은 책임과 부담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입력 제공자로서의 교사 관점에서 수업 시수 확대의 효과를 조사, 검증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이 시수 확대 정책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III. 연구 방법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초등영어 수업 시수를 확대, 적용한 후 이에 대한 교사 및 학생의 관점을 조사하기 위해 교사와 학습자의 반응을 설문 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해 고찰하였다. 연구 내용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연구 질문

- 1) 교사 관점에서 적절한 수업 시수는 몇 시간인가?
- 2) 교사들은 영어 수업 시수 확대가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3) 교사 관점에서 수업 시수 확대에 수반되는 문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 4) 학습자 관점에서 수업 시수 확대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2. 연구 참여자

영어 수업 시수의 확대가 학생들의 영어 공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시수 확대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다양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영어수업 시수 확대 연구에 참여한 교사 3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학교의 실정과 지역 분포와 학급 수 등을 고려하여 16개 연구학교를 2개의 실험군(A군, B군)으로 나누었다. A군 연구학교는 서울, 대

전, 인천, 광주(대도시), 경기, 제주(중소도시), 강원, 충남(읍면지역)의 학교들로서, 3, 4학년은 영어 수업 시간을 1시간씩 순증하여 실시하고, 5, 6학년은 2시간씩 순증하여 실시하였다. 한편, B군 연구학교는 부산, 대구, 울산, 경남(대도시), 경북, 전북(중소도시), 충북, 전남(읍면지역)의 학교들로서, 3, 4학년은 영어 수업 시간을 2시간씩 순증하고, 5, 6 학년은 1시간씩 순증하여 실시하였다(표 1 참조).

표 1
연구 학교의 학년별 수업 시수

연구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A군	주2 (+1)	주2 (+1)	주4 (+2)	주4 (+2)
B군	주3 (+2)	주3 (+2)	주3 (+1)	주3 (+1)

설문 조사에 참여한 306명의 교사들은 이들 16개 학교에 근무하며 시수 확대에 참여한 교사들로 남자는 87명(약 28.4%)이었고, 여자는 219명(약 71.6%)이었다. 영어지도 경력 면에서 성별에 차이가 없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표 2 참조). 교직 경력에 있어서는 5년 이상의 교사가 가장 많았고 3년 미만, 3년-5년의 순서로 나타났고 그룹별로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또한, 시수 확대에 참여한 연구학교 중 수도권 A초등학교의 교사 32명과 학생 685명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표 2
교사들의 성별에 따른 영어지도 경력 현황 (%)

		교사의 영어지도경력				계
		없음	3년 미만	3~5년	5년 이상	
성별	남교사	12(13.8)	28(32.2)	18(20.7)	29(33.3)	87(100.0)
	여교사	24(11.0)	75(34.2)	56(25.6)	64(29.2)	219(100.0)
계		36(11.8)	103(33.7)	74(24.2)	92(30.4)	306(100.0)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교사용 설문지는 두 가지로 그 중 하나는 확대된 수업 시수를 적용함에 있어 교사 부담과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설문 내용은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증된 수업 시수가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적절한 수업 시수는 몇 시간인지, 시수 확대로 인한 수업 준비 및 운영의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확대된 시수를 운영함에 있어 어려움이나 부담 등은 무엇인지,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등을 다루

고 있다.

한편 권역별 연구학교에서 교사들의 반응을 조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사용 설문지 중 수도권 A초등학교에서 개발한 것이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A초등학교에서 개발한 설문지는 영어 수업에 임하는 교사의 자신감, 교실 영어 사용 정도, 교수법 연수의 효과, 영어 수업 시수 확대의 교육적, 정의적 효과, 영어 체험 시설의 유형별 효과 등과 관련된 6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설문조사 외에 권역별 연구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반정형적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형태로 시수 확대 적용의 어려움이나 문제점, 확대된 수업 시수 적용을 위한 교수 전략,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교사 반응 외에 학습자 반응을 조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A초등학교에서 개발된 학습자 반응 검사지도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학습자용 설문지는 영어에 대한 흥미, 의사소통 동기, 시수 확대에 수반되는 학습 부담, 선호하는 학습 방법, 교수학습 활동의 유형별 효과, 영어체험 시설의 효과 등을 조사하기 위한 7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4.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는 2007년 가을학기에 순증된 수업 시수를 연구 학교에 적용한 후 연구에 참여한 306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수도권 A초등학교의 교사 32명을 대상으로 영어 수업 시수 확대의 교육적, 정의적 효과, 영어 체험 시설의 유형별 효과 등을 묻는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함께, 확대된 수업 시수를 경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수 확대의 교육적 효과 및 학습자의 학습 동기 및 흥미 등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수도권 A초등학교 학생 685명이 학습자 반응 조사에 참여하였다.

한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들은 수도권, 영남권, 중부권, 호남권 지역별로 확대된 시수를 적용한 연구 학교를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하고 담당교사를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 부담, 시수 확대의 효과, 학습자 태도 등에 역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IV. 결과 및 논의

1. 수업 시수의 적절성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관점에서 확대 시행한 시수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확대 시행한 시수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조사

한 결과 79명(54.1%)의 응답자가 1시간 추가 확대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것은 시수 확대 이전의 시수(초 3, 4학년 주 1시간, 초 5, 6학년 주 2시간)를 선호하는 응답도 30.8%(45명) 수준으로 나타난 것과 10% 미만의 응답자(14명)가 2시간 추가 확대 안을 선택한 것이다. 수업 시수의 적절성과 관련한 교사의 반응은 카이검정 결과 성별이나 영어 지도 능력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의 패턴이 남자, 여자에 관계없이 영어 지도 경력에 관계없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교사들은 무리한 시수 확대보다는 기존의 시수 체제나 1시간 추가 확대 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수업 준비 및 운영과 관련된 교사 부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유사한 결과가 수도권 A초등학교 교사들과의 심층면접에서도 나타났다. 즉, 연구학교 교사들은 확대된 시수를 운영하기 위해 교사 자신이 교재 내용을 개발하거나 교수-학습 활동을 구안해야 하는 등 영어 관련 업무가 과중하여 타 교과 지도에 집중하기 어려운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시수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심층면접 결과를 요약하면 현재 초등영어 시수인 주당 1~2시간의 수업은 외국어 습득 및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같은 견해는 초등 영어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건으로 수준별 학급 편성 및 운영, 영어 수업 시간의 증가를 강조한 교사 의견과 관련지어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적절한 수준의 초등영어 수업 시수로 1~2시간 정도의 시수 확대를 제안하였으며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에서 시수를 확대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3
적절한 영어 수업 시수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업 시간 양이 적절하지 않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X ²
		시범 시행보다 1시간 확대	시범 시행보다 2시간 확대	매일 1시간씩	시범 전과 같이	계	
성별	남	24(45.3)	7(13.2)	1(1.9)	21(39.6)	53(100.0)	1.38
	여	55(59.1)	7(7.5)	7(7.5)	24(25.8)	93(100.0)	
영어 지도 경력	없음	12(54.5)	2(9.1)	2(9.1)	6(27.3)	22(100.0)	3.74
	3년 미만	22(57.9)	3(7.9)	1(2.6)	12(31.6)	38(100.0)	
	3~5년	20(52.6)	5(13.2)	2(5.3)	11(28.9)	38(100.0)	
	5년 이상	25(52.1)	4(8.3)	3(6.3)	16(33.3)	48(100.0)	
계		79(54.1)	14(9.6)	8(5.5)	45(30.8)	146(100.0)	

한편 시범 시행된 수업 시수 확대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28명(23.7%)의 교사가 주당 3~4시간의 수업은 외국어 습득에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67명(56.8%)의 교사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표 4 참조). 이는 이병민(2003)에서 제기된 절대적 학습시간의 부족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성공적인 언어 습득에 요구되는 기본 학습 시간에 미달하기 때문에 대다수(80% 이상)의 교사들은 확대된 수업 시수도 불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준비와 운영과 관련된 부담으로 시수의 추가 확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표 3 참조).

표 4
시범 시행된 수업시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현재 시범 시행된 수업시간 양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X ²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당 3~4시간 수업시간만으로 외국어 학습에 충분치 않다	중학교 영어교육을 받기에 충분치 않다	기타	계	
성 별	남	20(57.1)	8(22.9)	2(5.7)	5(14.3)	35(100.0)	0.06
	여	47(56.6)	20(24.1)	4(4.8)	12(14.5)	83(100.0)	
영 어 지도 경력	없음	12(75.0)	1(6.3)	0(0)	3(18.8)	16(100.0)	9.64
	3년 미만	21(63.6)	6(18.2)	3(9.1)	3(9.1)	33(100.0)	
	3 ~ 5년	16(51.6)	8(25.8)	2(6.5)	5(16.1)	31(100.0)	
	5년 이상	18(47.4)	13(34.2)	1(2.6)	6(15.8)	38(100.0)	
계		67(56.8)	28(23.7)	6(5.1)	17(14.4)	118(100.0)	

2. 수업 시수 확대의 효과

연구학교 교사의 관점에서 초등 3, 4학년 수업을 주당 2~3시간, 5, 6학년 수업을 주당 3~4시간으로 실시한 것이 학습자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 중 227명(74.2%)의 교사가 시수 확대가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79명(25.8%)의 교사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표 5
영어 수업 시수 확대와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X ²
		그렇다	아니다	계	
성 별	남	64(73.6)	23(26.4)	87(100.0)	0.02
	여	163(74.4)	56(25.6)	219(100.0)	
영어 지도 경력	없음	24(66.7)	12(33.3)	36(100.0)	2.24
	3년 미만	78(75.7)	25(24.3)	103(100.0)	
	3 ~ 5년	55(74.3)	19(25.7)	74(100.0)	
	5년 이상	70(75.3)	23(24.7)	93(100.0)	
계		227(74.2)	79(25.8)	306(100.0)	

이는 표면상으로는 표 4의 결과와 대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확대된 시수가 언어 습득에 불충분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수 확대는 학습 시간량을 의미하고 입력(input)량의 증가는 습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도권 A초등학교에서 실시된 교사용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3~6학년 영어 수업 시간의 1~2시간 확대 운영이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되었느냐 하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32명 중 23명(72%)이 동의하였다.

한편, 영어수업 시수 확대와 더불어 실시된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영어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를 복수 응답하게 한 결과 교사의 성별이나 영어지도 경력과 무관하게 나타났다. 표 6에 요약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응답 내용 중 207개(39.4%)가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학습에 관한 것이었고 113개(21.5%)는 어학실습실 및 기자재의 미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수업 시수 확대 정책에 필요한 제반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은 채 시수를 확대 운영해야 했던 교사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확대된 시수에 초등영어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심화, 보충형 수준별 교육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화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운 점이 있었다. 따라서 권역별로 연구에 참여한 학교들 간에 협의를 통해 수준별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했기 때문에 지역별, 학교별 차이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었다. 한편, 어학 실습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요구는 확대된 시수를 운영하는 데 요구되는 멀티미디어 언어 학습 시설 및 기자재 지원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표 6
영어수업 시수 확대가 학생들의 영어능력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시수 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영어능력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두 가지는?							
		주당 영어 수업 시간 부족	교사의 자질과 능력 부족	학습교재 내용 및 수준 문제	어학 실습실 및 기자재 미확보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학습	다양하지 않은 영어 프로그램	기타	계
성별	남	12(7.4)	20(12.3)	18(11.1)	31(19.1)	54(33.3)	23(14.2)	4(2.5)	162(100.0)
	여	11(3.0)	34(9.4)	21(5.8)	82(22.6)	153(42.1)	54(14.9)	8(2.2)	363(100.0)
	계	23(4.4)	54(10.3)	39(7.4)	113(21.5)	207(39.4)	77(14.7)	12(2.3)	525(100.0)
없음		4(6.8)	9(15.3)	3(5.1)	13(22.0)	24(40.7)	5(8.5)	1(1.7)	59(100.0)
영어 지도 경력	3년 미만	3(1.7)	10(5.6)	14(7.8)	47(26.1)	74(41.1)	28(15.6)	4(2.2)	180(100.0)
	3 ~ 5년	5(3.9)	16(12.6)	15(11.8)	21(16.5)	49(38.6)	19(15.0)	2(1.6)	127(100.0)
	5년 이상	11(6.9)	19(11.9)	7(4.4)	32(20.1)	60(37.7)	25(15.7)	5(3.1)	159(100.0)
계		23(4.4)	54(10.3)	39(7.4)	113(21.5)	207(39.4)	77(14.7)	12(2.3)	525(100.0)

한편, 영어수업 시수 확대와 더불어 실시된 각종 영어 관련 행사에 대해 전체 252명의 응답자 중 176명(69.9%)이 학생들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표 7 참조). 구체적으로 영어 인증제, 영어 졸업장, 영어자랑 및 표현 발표회, 아침 영어시간 운영, 영어캠프, 주말 영어 학교 등과 같은 영어 관련 행사가 학생들의 영어공부 또는 동기 부여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긍정적 응답이 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A초등학교에서 실시한 교사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 설치된 영어 체험 시설(예: 영어체험학습실, 토크센터, 교실 내 영어 게시판, 복도 영어) 중 학생들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된 것은 영어 체험학습실(87.51%), 교실 내 영어 게시판(40.63%), 복도 영어(34.38%), 토크센터(21.8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하거나 학습 흥미를 고취할 수 있는 활동으로 영어 말하기, 영어 발표회, 영어 연극, 특별영어교실, 교육방송 영어 청취, 기타 학습자료 등이 고르게 지적되었다.

표 7
영어수업 시수 확대와 함께 실시된 각종 영어 관련 행사의 효과

		학생들의 영어공부에 도움이 된다					계	X ²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성 별	남	6(9.4)	32(50.0)	19(29.7)	6(9.4)	1(1.6)	64(100.0)	0.06
	여	30(16.0)	108(57.4)	41(21.8)	8(4.3)	1(0.5)	188(100.0)	
영어 지도 경력	없음	4(13.8)	15(51.7)	9(31.0)	1(3.4)	0(0.0)	29(100.0)	10.30
	3년 미만	9(10.5)	44(51.2)	26(30.2)	5(5.8)	2(2.3)	86(100.0)	
	3 ~ 5년	11(17.2)	37(57.8)	12(18.8)	4(6.3)	0(0.0)	64(100.0)	
	5년 이상	12(16.4)	44(60.3)	13(17.8)	4(5.5)	0(0.0)	73(100.0)	
계		36(14.3)	140(55.6)	60(23.8)	14(5.6)	2(0.8)	252(100.0)	

3. 수업 시수 확대에 대한 교사 부담감

영어 수업 시수 확대에 의한 수업 준비 및 운영에 대한 부담 정도를 알아본 결과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사의 성별이나 영어 지도 경력과 무관하게 257명(84.5%)의 응답자가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영어 수업을 영어로 진행해야 하는 부담감에 늘어난 시수를 현재 국가 교육과정의 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준별로 운영해야 하는 물리적, 심리적 부담까지 가중된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8
영어 수업 시수 확대에 의한 수업 준비 및 운영에 대한 부담 정도

		현재 영어 수업 시수 확대에 의해 수업 준비 및 운영에 얼마나 부담이 되십니까?					계	X ²
		매우 부담이 된다	부담이 된다	보통이다	적다	부담이 적거나 없다		
성 별	남	27(31.4)	44(51.2)	14(16.3)	1(1.2)	0(0.0)	86(100.0)	1.70
	여	63(28.9)	123(56.4)	27(12.4)	4(1.8)	1(0.5)	218(100.0)	
영어 지도 경력	없음	11(30.6)	19(52.8)	4(11.1)	1(2.8)	1(2.8)	36(100.0)	9.93
	3년 미만	28(27.5)	58(56.9)	15(14.7)	1(1.0)	0(0.0)	102(100.0)	
	3 ~ 5년	25(33.8)	37(50.0)	11(14.9)	1(1.4)	0(0.0)	74(100.0)	
	5년 이상	26(28.3)	53(57.6)	11(12.0)	2(2.2)	0(0.0)	92(100.0)	
계		90(29.6)	167(54.9)	41(13.5)	5(1.6)	1(0.3)	304(100.0)	

이와 같은 결과는 A초등학교에서 실시된 교사용 설문 결과에도 반영되어 있다. 영어 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묻는 문항에서 6명(18.7%)의 교사만 자신감을 표현하였다. 대다수의 교사가 자신감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59.38%), 이는 실제 수업 시간에 교실 영어를 사용하는 빈도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교실 영어를 사용한다’는 응답 비율은 30% 수준에 머무른 반면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40% 이상이었다.

교사의 수업 준비 부담은 영어 수업 시수 확대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묻는 항목에서도 가장 높은 응답 비율로 나타났다(표 9 참조). 즉, 수업 시수 확대의 문제점을 복수 응답으로 설문한 결과 ‘수업 준비 부담’이 32.9%(n=196)로 가장 많았고 ‘훈련된 교사 부족’이 16.1%(n=96), ‘교재의 미비’가 13.6%(n=81),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지원 부족’이 13.4%(n=80), ‘다른 교과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11.7%(n=70)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와 같은 응답은 교사의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교사들의 수업 준비 부담이 상당히 높다는 앞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표 9
영어 수업 시수 확대에 수반되는 문제점

		영어수업 시수 확대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예상되는 문제점									
		수업 준비 부담	교재의 미비	평가 도구 미비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지원 부족	다른 교과와의 형평성 문제	훈련된 교사 부족	시수 확대에 따른 교사연수	기타	계	
성별	남	57(33.9)	24(14.3)	5(3.0)	19(11.3)	24(14.3)	26(15.5)	9(5.4)	4(2.4)	168(100.0)	
	여	139(32.5)	57(13.3)	9(2.1)	61(14.3)	46(10.7)	70(16.4)	40(9.3)	6(1.4)	428(100.0)	
계		196(32.9)	81(13.6)	14(2.3)	80(13.4)	80(11.7)	96(16.1)	49(8.2)	10(1.7)	596(100.0)	
없음		20(29.0)	5(7.2)	1(1.4)	6(8.7)	7(10.1)	20(29.0)	10(14.5)	0(0.0)	69(100.0)	
영어 지도 경력	3년 미만	64(31.8)	36(17.9)	5(2.5)	33(16.4)	21(10.4)	25(12.4)	15(7.5)	2(1.0)	201(100.0)	
	3 ~ 5년	48(33.3)	19(13.2)	3(2.1)	22(15.3)	17(11.8)	18(12.5)	12(8.3)	5(3.5)	144(100.0)	
	5년 이상	64(35.2)	21(11.5)	5(2.7)	19(10.4)	25(13.7)	33(18.1)	12(6.6)	3(1.6)	182(100.0)	
계		196(32.9)	81(13.6)	14(2.3)	80(13.4)	70(11.7)	96(16.1)	49(8.2)	10(1.7)	596(100.0)	

이와 같은 결과는 권역별로 실시한 심층면접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수도권을 대표한 A초등학교에서는 수업 시수 확대가 교사에게는 수업 준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재 개발 및 다양한 활동의 진행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중부권에서도 수업량 확대로 인한 수업 부담과 업무 부담의 과중함을 지적하며 교사 충원 및 인센티브 제도의 마련 등을 촉구하였다. 영남권역의 경우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 수업 시수를 확대 실시하는 취지는 좋지만 교사의 영어 사용 능력 강화, 전담 교사 확보 등의 제반 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호남 지역에서도 시수 확대 안은 이상적이지만 교사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건이 조성된 후에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수업 시수 확대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2가지 자유롭

게 기술하도록 한 결과를 범주화하여 제시하면 표 10과 같다. 해결 방안과 관련하여 91개(27.7%)의 응답이 ‘교재, 자료 개발 지원’에 대한 것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79개(24%)의 응답이 ‘전담교사 및 영어시간 확보’에 관한 것이었고 67개(20.4%)의 응답이 ‘교사연수 확대’에 관한 것이었다. 그 밖의 해결 방안으로 ‘기자재, 시설 및 영어사용 환경의 조성’(7.9%), ‘타교과 축소’(7.0%), ‘원어민 교사 확보’(4.9%), ‘교육과정 내용 조정’(3.3%) 등의 내용이 제시되었다.

교수-학습 자료 개발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연구 참여 교사들이 확대된 시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교재를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했고 이에 따른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 교육과정의 원리에 맞는 수준별 교육 내용을 담은 표준화된 교재가 구비된다면 시수 확대와 관련된 많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A초등학교에서 실시한 교사용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어민 교사와 담임교사의 협력 수업, 영어 학습 자료 제작, 노래와 율동 등을 주제로 하는 영어과 지도법 연수가 교사의 학습 지도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8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확대된 시수 운영을 위한 교수법 연수가 교사들의 교수 역량 강화에 유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심층면접에서도 표 10에 제시된 내용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다양하고 적절한 자료의 구비,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 및 보완, 교사 연수 프로그램 확충 등이 제안되었다. 또한 영어 사용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원어민 보조교사의 활용, 가정과 연계한 영어 지도 강화, 교사와 학부모가 공동 참여 개발한 교수 학습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영어 체험 학습 여건 조성, 상황 중심의 체험 활동, 놀이, 게임 등을 통한 영어 체험 학습 프로그램 구안 및 적용, 영어체험 학습실, 영어 축제, 영어 발표회, 영어 캠프 같은 다양한 영어 체험 활동 등이 제안되었다. 한편, A초등학교 교사들은 과도한 영어 관련 행사는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 지도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영어 관련 행사도 좋지만 수업의 내실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무리한 시수 확대보다는 방과 후 수업을 활용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원어민 교사 확보에 대한 응답 비율은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낮게 나타났다. 심층 면접 내용의 분석 결과 교사들은 원어민 교사 활용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른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영어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교사의 유형으로 학급 담임교사나 원어민 교사보다 전담 교사가 낫다고 응답한 것도 주목할만하다. 교사들은 심층면접에서 초등영어 교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로 영어 구사력도 중요하지만 수업 운영 능력 및 학습자 특성에 대한 이해를 지적하고 있었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달라지는 학습자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교수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원어민 교사를 활용하는 영어 전용 강의의 경우 원어민 대 한국 교사의 업무 분담을 50%씩 나누어 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한국인 교사가 기본적인 내용을 진행하고 교실 통제를 하며 원

어민 교사는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원어민과 한국인 교사가 협력하여 확대된 수업 시수를 운영하는 경우 고학년, 저학년별로 수업 계획 및 준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표 10
영어 수업 시수 확대 관련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문제점 해결 방안								
		교재, 자료 개발 지원	전담교사 및 시간 확보	교사 연수 확대	원어민 교사 확보	타교과 축소	기자재, 시설 및 영어사용 환경조성	교육 과정 내용 조정	기타	계
성별	남	20(21.7)	26(28.3)	13(14.1)	3(3.3)	8(8.7)	9(10.0)	5(5.6)	5(5.6)	92(100.0)
	여	71(30.0)	53(22.4)	54(22.8)	13(5.5)	15(6.3)	7(3.0)	6(2.5)	6(2.5)	237(100.0)
계		91(27.7)	79(24.0)	67(20.4)	16(4.9)	23(7.0)	26(7.9)	11(3.4)	16(4.9)	329(100.0)
없음		2(9.5)	9(42.9)	3(14.3)	1(4.8)	2(9.5)	2(9.5)	0(0.0)	2(9.5)	21(100.0)
영어 지도 경력	3년 미만	31(31.0)	17(15.0)	18(15.9)	6(5.3)	8(7.1)	17(15.0)	4(3.5)	8(7.1)	113(100.0)
	3 ~ 5년	28(28.1)	19(21.3)	24(27.0)	5(5.6)	4(4.5)	5(5.6)	3(3.4)	4(4.5)	89(100.0)
	5년 이상	29(27.4)	34(32.1)	22(20.8)	4(3.8)	9(8.5)	2(1.9)	4(3.8)	2(1.9)	106(100.0)
계		91(27.7)	79(24.0)	67(20.4)	16(4.9)	23(7.0)	26(7.9)	11(3.3)	16(4.9)	329(100.0)

그밖에도 확대된 수업 시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수 전략과 관련 해서 심층 면접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생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들에게 학습한 내용을 활동, 게임, 율동, 노래, 프로젝트 등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 및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참여한 교사들은 교재의 중요성도 역설하였는데 특히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교재 및 교사용 지도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4. 수업 시수 확대에 대한 학습자 반응

수업 시수 확대에 대한 교사의 관점을 조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 늘어난 수업 시간을 경험하는 학습자들의 반응을 분석하는 것은 시수 확대 정책을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에 학습자 반응을 학습 흥미, 의사소통 동기, 학습 부담, 선호하는 학습 방법 등의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표 11은 영어 수업 시수 증대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요약한 것으로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영어 공부가 재미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87명(56.5%)이었고 학교에서 실시한 다양한 영어 활동에 참여한 결과 영어에 대한 흥미가 증

가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312명(45.55%)의 학생들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외국인과 의사소통 하고자 하는 동기와 관련해서는 346명(50.52%)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연구에 참여해 확대된 수업 시수를 경험한 학생들의 영어 학습 흥미 및 동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
영어 수업 시수 확대에 대한 학습자 반응

평가 내용		결 과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여러분은 영어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습니까?		41 (5.99)	69 (10.07)	188 (27.45)	225 (32.85)	162 (23.65)
2. 우리학교의 다양한 영어교육활동으로 여러분의 영어에 대한 흥미가 늘었습니까?		55 (8.03)	73 (10.66)	245 (35.77)	207 (30.22)	105 (15.33)
3. 지금 여러분 앞에 외국인이 나타난다면, 말을 걸고 싶은가요?		69 (10.07)	89 (12.99)	181 (26.42)	173 (25.26)	173 (25.26)
4. 학교에서 정규 영어수업 시간보다 1~2시간 더 늘려서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학습 부담이 되었습니까?		197 (28.76)	146 (21.31)	137 (20.00)	91 (13.28)	114 (16.64)
5. 학교에서 배운 영어 학습 방법 중 가장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요?		컴퓨터, 인터넷, CD	교과서 학습지	놀이 게임 활동	노래 쉐트	스토리 텔링
		91 (13.28)	52 (7.59)	410 (59.85)	99 (14.45)	33 (4.82)
영어 능력과 흥미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 활동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수업	30 (4.38)	42 (6.13)	189 (27.59)	223 (32.55)	201 (29.34)
	영어교과 전담교사수업	43 (6.27)	44 (6.42)	215 (31.39)	230 (33.58)	153 (22.34)
	EBS English 영어 방송 청취	79 (11.53)	89 (12.99)	271 (39.56)	164 (23.94)	82 (11.97)
	방과후 영어특별교실	103 (15.04)	80 (11.68)	295 (43.07)	131 (19.12)	76 (11.09)
	교내 영어 행사	104 (15.18)	91 (13.28)	248 (36.20)	127 (18.54)	115 (16.78)
학교 내 영어 체험 시설과 영어 공부	영어 체험시설	34 (4.96)	28 (4.08)	155 (22.62)	223 (32.55)	245 (35.76)
	토킹센터	140 (20.43)	119 (17.37)	250 (36.49)	124 (18.10)	52 (7.59)
	교실 영어 게시판	102 (14.89)	97 (14.16)	267 (38.97)	138 (20.14)	81 (11.82)
	복도 영어환경	81 (11.82)	97 (14.16)	275 (40.14)	138 (20.14)	94 (13.72)

한편, 학습 부담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343명(50.07%)의 학생들이 수업 시수의 확대가 학습에 부담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학습 부담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205명(29.92%)이 있었지만 부담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

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수가 확대된 수업을 받으면서 경험한 학습 방법 중 가장 재미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놀이와 게임 활동(59.85%), 노래, 챗트(14.45%), 컴퓨터, 인터넷, CD(13.2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학교에서 실시했던 다양한 활동 중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이나 흥미 고취에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수업(61.89%), 영어교과 전담교사(55.92%)를 가장 많이 언급했고 교내 영어 행사(35.32%)와 EBS 영어 청취(35.91%)에 대한 응답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학교 내에 설치된 영어 학습 체험시설 중 어느 것이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68명(68.31%)의 응답자가 영어 체험 학습실(English World)을 가장 유용하다고 응답하였다. 영어 체험 학습실은 영어 마을의 축소판 형태로서 입국 심사장, 기내, 은행, 시장, 집, 거리 등의 다양한 상황을 구현하여(예: immigration zone, airplane zone, movie and role play zone, bank zone, market zone, meeting zone, sweet home zone, street zone 등)학생들이 상황에 맞는 영어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체험 학습실 외에 생활 중심의 영어 학습을 위해 구축된 복도 영어 환경이나 교실 내 설치된 영어 게시판에 대해서 30% 이상의 학생들이 그 효과를 인정하였다. 한편 복도에 설치되어 간단한 생활영어 듣기 자료를 제공하는 영어회화 학습기의 일종인 토킹센서에 대한 응답비율은 다른 체험 시설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체험 학습실, 게시판, 복도 환경 등에 비해 실제성(authenticity)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IV. 결론

본 연구는 초등영어 시수를 현재보다 1~2시간 늘려서 현장에 적용하고 교사의 수업 부담 및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교사의 견해를 조사하였다. 또한 확대된 시수를 경험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흥미, 동기 등에 대한 정의적 반응을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교사들은 영어 수업 시수 확대가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시수 확대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한편으로는 현행보다 1~2시간 순증하는 것도 언어 습득에 불충분하며 추가적인 시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업 부담 때문에 2시간 확대보다는 1시간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1~2시간의 시수 순증이 학생의 영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로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수업, 어학실습실 및 기자재의 미확보 등을 지적하였다. 특히, 확대된 수업 시수를 위해 디자인한 교재는 권역 내 교사 간 협의 및 워크숍 등의 과정을 거치며 개발되기는 했지만 국가교육과정이지향하는 수준별 교육을 완벽하게 구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수 확대에 수반되는 문제점으로는 교사의 수업 준비 부담과 훈련된 교사의 부족 등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이는 수업 시수를 확대하는 정책이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게 하는 정책과 함께 영어구사력, 수업 운영 능력, 학습자 특성에 대한 이해력 등의 자질을 갖춘 영어과 전담교사의 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교사 관점에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교사들의 교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의 기획, 운영에 대한 요구를 표현하였다.

한편, 학습자 반응 결과에 의하면 시수 확대의 교육적, 정의적 효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확대된 수업 시수를 경험한 학생들은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 의사소통 동기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습 부담 측면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30%의 학생들은 늘어난 시수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했으나 전체 응답자 중 50%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늘어난 시수가 학생들의 학습 부담보다는 교사들의 수업 부담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교사들은 교실 내 수업 외에도 영어 마을 같은 체험 시설 및 다른 영어 활동 등의 유용성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고려했을 때 교육부가 시안으로 제시한 시수 확대 정책은 타당성이 있고 실행 가능해 보인다. 문제는 교사나 학습자 관점에서 몇 시간 순증이 적절한가 하는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언어 입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경로로서 수업의 시수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 여겨지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점진적으로 시수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수를 무리하게 확대하는 경우 중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확보가 쉽지 않고 확대된 시수를 수용할 수 있는 교원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영어를 전담해서 가르치는 초등 교원 임용 비율도 높이고 교사 연수 및 해외 연수 등의 형태로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초등영어는 내용이 단순하기에 누구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 초등영어 교사가 언어에 대한 지식 및 언어구사력 외에도 초등 학습자 특성에 대한 이해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은 심층면접을 통해서 밝혀졌다. 따라서 원어민 교사가 내국인 교사를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심층면접에서 제안된 방법대로 내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가 수업을 공동 설계하고 교실 내 역할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분담하여 상호 협력하는 체계가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인원의 원어민 교사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시수 확대가 학생들의 영어 사용 능력을 신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있다. 혹자는 공교육에서의 시수 확대가 사교육비의 지출 증가를 초래한다고 경고할 것이다. 2007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초, 중, 고 272개 학교, 34,0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교육비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2007년 우리나라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400억 원이었으며 그 중 10조원 이상이 초등학생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통계청, 2008). 사교육비의 지출 증가는 국민들의 가계에 큰 경제적 부담을 주는 동시에, 사교육비의 지출이 가능한 계층과 가능하지 않은 계층 간에 영어교육 기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사교육비 지출 가능 여부에 따른 계층의 양극화는 교육적인 문제를 넘어서 정치·사회적인 문제로 비화하여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시수 확대는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영어교과목의 중요성을 직, 간접적으로 부각시켜 사교육 열풍을 더욱 조장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공교육의 질 강화와 내실성 확보를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시수를 확대하는 것은 의미도 없고 성과도 없을 것이다. 지금 초등학교 영어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은 지나치게 쉽고 중학교와의 연계성도 부족하다. 시수 확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교육과정, 교재 개발, 교수-학습 활동 구안, 우수한 교사 확보, 교사 교육 및 연수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위 수준 학생들은 도전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하위 수준 학생들은 흥미와 동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학습하도록 수준별 수업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교실 수업으로 불충분한 입력의 양은 방과 후 활동, 재량 활동, 특별 활동 등의 경로를 통해 보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교수-학습 방법은 중등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하면 초등학교 3, 4, 5, 6학년의 영어 수업 시수 확대 안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수업 부담, 교사의 수업 부담, 학습자료 및 기자재의 확충, 전체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 사교육비 증대 가능성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연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교육 실행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여건을 지속적으로 충실히 마련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시수를 확대 시행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약우, 박기화, 최진황, 이소영. (2001). 초·중등 영어교육의 연계방안 연구. *초등영어교육*, 7(1), 5-42.
- 이병민. (2003). EFL 영어학습 환경에서 학습시간의 의미. *외국어교육*, 10(2), 107-129.
- 이완기, 최연희, 부경순, 이정원. (2001). 중학교 1학년 영어교육에 나타난 초등 영어교육의 효과. *영어교육*, 56(4), 211-242.
- 최연희, 이정원, 이완기, 부경순. (2003). 중학교 영어교육의 실태분석을 통한 초등 영어교육의 효과 검증: 학생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초등영어교육*, 9(1), 131-166.
- 통계청. (2008). *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Retrieved August 10, 2008, from the

- World Wide Web: <http://pedu.nso.go.kr/>
-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1999). *ACTFL proficiency guidelines-speaking*. Retrieved August 1, 2008,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actfl.org/files/public/Guidelinespeak.pdf>.
- Butler, Y. (2004). What level of English proficiency do elementary school teachers need to attain to teach EFL?: Case studies from Korea, Taiwan, and Japan. *TESOL Quarterly*, 38(2), 245-278.
- Dekeyser, R. D. (2000). The robustness of critical period effect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2, 499-533.
- Donato, R., Tucker, G. R., Wudthayagorn, J., & Igarashi, K. (2000). Converging evidence: Attitudes, achievements, and instruction in the later years of FLES. *Foreign Language Annals*, 33(4), 377-393.
- Fillmore, L. W. (1982). Instructional language as linguistic input: Second language learning in classrooms. In L. C. Wilkinson (Ed.), *Communicating in the classroom* (pp. 283-96). New York: Academic Press.
- Flege, J. E., & Liu, S. (2001). The effect of experience on adults' acquisition of a second language.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3, 527-552.
- Hakuta, K., Butler, Y. G., & Witt, D. (2000). *How long does it take English learners to attain proficiency?* Retrieved August 1, 2008, from the World Wide Web: <http://repositories.cdlib.org/cgi/viewcontent.cgi?article=1001&context=lmri>.
- Kim, Duk-Ki. (2001). CLT and TETE for non-native teachers: A reading comprehension approach.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17(2), 55-72.
- Kim, Sung-Yeon. (2002). Teachers' perceptions about teaching English through English. *English Teaching*, 57(1), 131-148.
- Kim, Sung-Yeon. (2008). Five years of teaching English through English: Responses from teachers and prospects for learners. *English Teaching*, 63(1), 51-70.
- Kwon, Oryang. (2005). The effect of elementary school English education on Korean high school students' English abilities. *English Teaching*, 60(3), 49-66.
- Lee, Yo-An. (2006). Speaking proficiency of non-native English teachers: Constructing multiple utterances. *English Teaching*, 61(3), 189-212.
- Li, D. (1998). It's always more difficult than you plan and imagine: Teachers' perceived difficulties in introducing the communicative approach in South Korea. *TESOL Quarterly*, 32(4), 677-703.
- Long, M. (1985). Input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heory. In S. Gass & C. Madden (Eds.), *Inpu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 377-93). Rowley, MA: Newbury House.
- Nemtchivona, E. (2005). Host teachers' evaluation of nonnative English speaking trainees: A perspective from the classroom. *TESOL Quarterly*, 39(2), 235-262.
- Sharwood Smith, M. (1994). *Second language learning: Theoretical foundations*. New

- York: Longman.
- Swain, M. (1985). Communicative competence: Some roles of comprehensible input and comprehensible output in its development. In S. Gass & C. Madden (Eds.), *Inpu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 235-53). Rowley, MA: Newbury House.
- Van Lier, L. (1996). *Input, interaction, and the second language learner*. London: Longman.
- Willis, J. (1996). *A framework for task-based learning*. London: Longman.

교육 단계(applicable levels): 초등교육
주제어(key words): 언어 입력, 수업 시수, 학습자 반응, 교사 태도

Sung-Yeon Kim
Dept. of English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02) 2220-1141 (O)
sungkim@hanyang.ac.kr

Soyoung Lee
Dept. of English Education
Inha University
(032) 860-7856 (O)
soyoung@inha.ac.kr

Won-Key Lee
Dept. of English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02) 3475-2554 (O)
wkl@snue.ac.kr

Jai Hee Lee
Dept. of English Education
Gy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032) 540-1334 (O)
jhlee55@ginue.ac.kr

Received in August, 2008
Reviewed in September, 2008
Revised version received in November, 2008